

2013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월 CBSI 3.5p 하락한 65.4 기록

- 계절적 요인 영향 소폭 하락,

2월 전망치 77.2로 체감경기 침체수준 다소 개선 전망 -

- 2013년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5p 하락한 65.4를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작년 12월 큰 폭으로 상승해(전월비 10.2p 상승) 68.9를 기록했는데, 1월에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함.
 - 통상 1월에는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급감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공사물량도 감소하는데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1월 CBSI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CBSI 하락 폭이 2012년 1월의 전월비 9.3p 하락에 비해서는 작았고, 지수 자체도 작년 10월의 58.9, 11월의 58.7보다는 양호해 건설업체 체감경기가 추가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님.
- 한편, 2013년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11.8p 상승한 77.2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0p 이상 상승한 것은 2012년 3월 이후 10개월만인데, 이는 건설업체들이 그만큼 2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통상 2월에도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민간부문도 계절적 요인 및 거시경제 침체 영향으로 크게 회복되기 어려워 실제로 2월 CBSI 실적치가 70선 중반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가 전월비 하락한 가운데,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소폭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작년 12월에 전월비 14.3p 상승해 92.9를 기록했으나, 올 1월에는 전월비 7.2p 하락한 85.7를 기록하며 다시 90선 아래로 하락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6.3p 하락한 40.0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다시 악화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2.7p 상승한 66.7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몇몇 중견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등 유동성 위기 심화로 작년 12월 지수가 2009년 12월 이후 12월 지수로는 4년내 가장 저조한 64.0에 그친 기저효과 때문으로 판단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4.3, 90.2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3.1, 76.6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8.5, 73.1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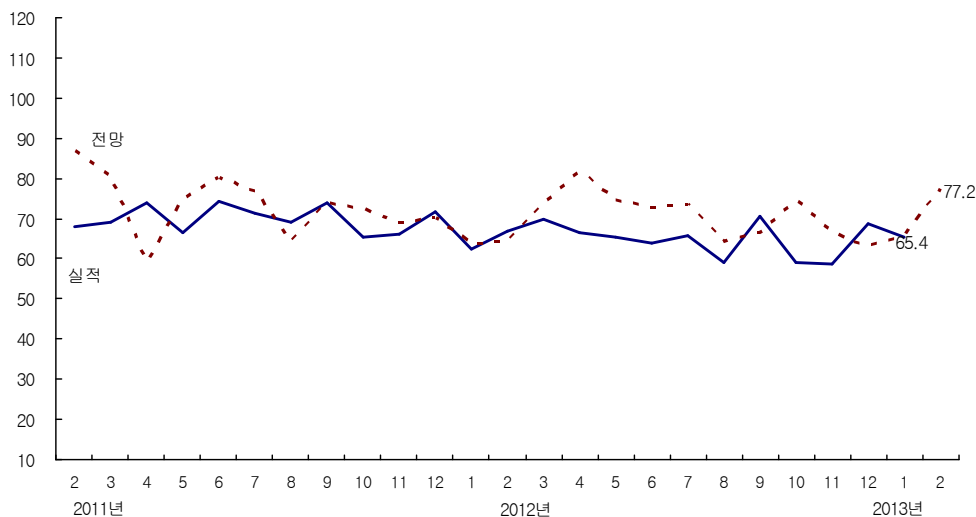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월 CBSI 3.5p 하락한 65.4 기록, 계절적 영향 소폭 하락

- 2013년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5p 하락한 65.4를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작년 12월 큰 폭으로 상승해(전월비 10.2p 상승) 68.9를 기록했는데, 1월에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함.
 - 통상 1월에는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급감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공사물량도 감소하는데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1월 CBSI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CBSI 하락 폭이 2012년 1월의 전월비 9.3p 하락에 비해서는 작았고, 지수 자체도 작년 10월의 58.9, 11월의 58.7보다는 양호해 건설업체 체감경기가 추가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님.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업체 지수가 전월비 하락한 가운데,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소폭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작년 12월에 전월비 14.3p 상승해 92.9를 기록했으나, 올 1월에는 전월비 7.2p 하락한 85.7를 기록하며 다시 90선 아래로 하락함.

- 중소기업체 지수 역시 전월비 6.3p 하락한 40.0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다시 악화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2.7p 상승한 66.7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몇몇 중견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등 유동성 위기 심화로 작년 12월 지수가 2009년 12월 이후 12월 지수로는 4년내 가장 저조한 64.0에 그친 기저효과 때문으로 판단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2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월		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9.9	66.4	65.4	63.8	65.7	59.0	70.6	58.9	58.7	68.9	65.4	65.6	77.2
규모 별	대형	85.7	71.4	92.3	92.9	92.9	80.0	91.7	76.9	92.9	85.7	78.6	92.9
	중견	68.0	72.0	58.3	50.0	56.0	46.2	61.5	57.7	64.0	66.7	62.5	76.9
	중소	53.4	54.1	41.8	45.6	44.8	49.1	56.4	39.3	46.3	40.0	53.8	59.3
지역 별	서울	74.7	74.1	74.9	72.1	79.4	63.8	80.5	69.9	69.6	76.2	69.3	81.9
	지방	62.5	54.9	53.6	51.0	45.2	51.6	56.5	43.2	52.1	49.0	59.4	7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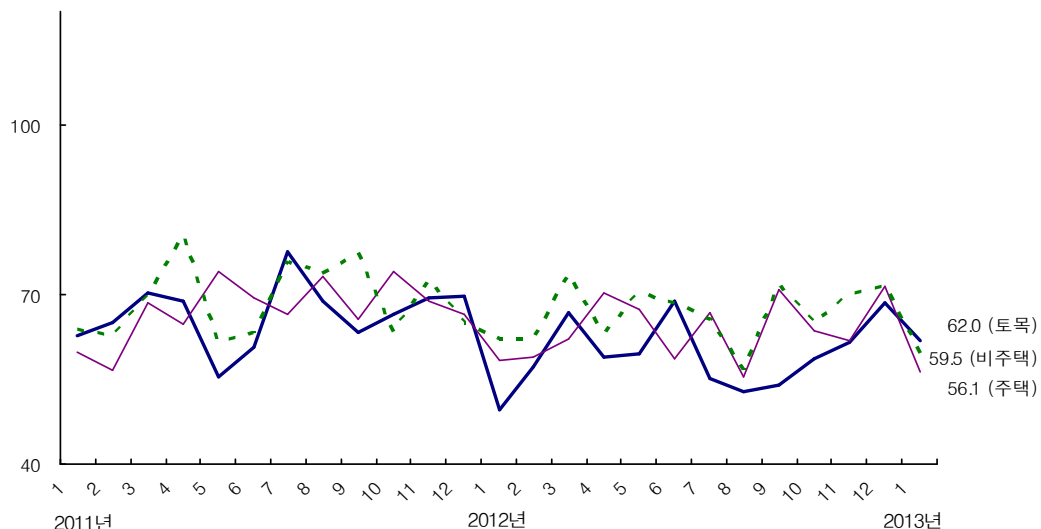
- 한편, 2013년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11.8p 상승한 77.2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0p 이상 상승한 것은 2012년 3월 이후 10개월만 인데, 이는 건설업체들이 그만큼 2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통상 2월에도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민간부문도 계절적 요인 및 거시경제 침체 영향으로 크게 회복되기 어려워 실제로 2월 CBSI 실적치가 70선 중반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 1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업체 모두 전월 대비 3.1p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2012년 12월에 9.7p 상승한 79.3을 기록하였음. 올 1월에는 3.1p 하락한 76.2로 지수가 소폭 감소함.
 - 지방업체 지수는 2012년 12월에 전월 대비 9.6p 증가한 52.1을 기록함. 올 1월에는 3.1p 감소한 49.0을 기록, 한달만에 다시 40선으로 하락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한편, 2013년 2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1월보다 5.7p 상승한 81.9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은 21.0p 증가한 70.0으로 전망함.

- 지방업체의 지수는 지난 2011년 12월 70.1을 기록한 이후 1년 1개월 동안 40~50선에 머물렀는데, 전망한대로 한달 사이에 70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서울 업체들 보다 지방 업체들이 물량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

1월 공사 물량지수 지난 2012년 12월보다 7.8p 감소한 66.6기록

- 2013년 1월 공사 물량지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전월보다 7.8p 감소한 66.6을 기록함.
 - 물량지수는 지난 2012년 9~11월 3개월 연속 60선 초반에 머물며 부진하였다가 12월에 전월 대비 12.6p 증가한 74.4를 기록, 6개월 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 그러나, 올 1월 들어서면서 다시 7.8p 하락한 66.6을 기록함.
 - 지난 2007~2012년 기간 동안 12월과 1월 사이 평균적으로 11~12p 하락 하였는데 올 1월은 이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낮은 편임.
 - 다만, 지난 7년간 1월 물량 지수 평균이 60대 중반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계절적 요인에 의해 지수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종별로 전 공종이 전월대비 하락함. 주택이 전월보다 15.2p 감소해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비주택이 12.0p, 토목이 6.6p 각각 감소하였음.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2012년 12월 전월 대비 9.5p 상승한 71.4를 기록했으나, 올 1월 다시 15.2p 하락하여 56.2를 기록, 공중별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비주택 물량 지수 또한 지난 2002년 12월에 공중별로는 가장 양호한 수치인 71.5를 기록하였으나, 올 1월 들어 12.0p 하락한 59.5를 기록, 5개월 만에 다시 50선을 기록함.
 - 한편,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2012년 10~12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올 1월 다시 6.6p 하락한 62.0을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대형과 중견, 중소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 대비 하락 폭은 중소, 대형, 중견 업체 순임.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2p 감소한 85.7로 지난 2012년 11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공중별로 주택이 64.3으로 가장 부진했으며, 토목과 비주택 각각 78.6을 기록하였음.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5.9p 감소한 74.1을 기록함. 비주택 물량지수가 63.0으로 가장 부진한 가운데, 토목과 주택 각각 73.1을 기록하였음.
 -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0.6p 감소한 35.7을 기록, 지난 2012년 11월 34.0 이후 다시 2개월 만에 30선을 기록함. 주택 물량이 27.7로 매우 부진하였으며 토목이 29.8, 비주택이 33.3을 각각 기록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6.6	85.7	74.1	35.7	79.5	47.2
	전망	76.6	100.0	69.2	57.4	86.1	62.2
토목	실적	62.0	78.6	73.1	29.8	77.0	39.6
	전망	75.4	92.3	68.0	64.2	83.2	64.1
주택	실적	56.2	64.3	73.1	27.7	66.9	39.3
	전망	61.7	71.4	60.0	52.2	66.1	54.9
비주택	실적	59.5	78.6	63.0	33.3	66.8	48.4
	전망	73.6	100.0	61.5	56.3	82.9	59.6

주 : 실적은 2013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4.3p 감소한 79.5를 지방업체도 전월보다 12.1p 감소한 47.2로, 서울과 지방 모두 전월보다 감소하였음.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2012년 12월 전월 대비 13.1p 상승한 83.8을 기록하였음. 올 1월에는 전월 대비 4.3p 감소한 79.5를 기록해 80선 아래로 하락함.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66.9, 66.8로 부진하였으며, 토목 물량은 77.0을 기록해 타 공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했음.
- 지방업체 물량 지수는 지난 2012년 12월 전월보다 10.4p 상승한 59.3을 기록하였음. 올 1월에는 전월 대비 12.1p 감소한 47.2로, 2개월 만에 다시 40선을 기록함. 공종별로 주택이 39.3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토목이 39.6을 비주택이 48.4를 각각 기록하였음.
- 2013년 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월 실적치보다 10.0p 상승한 76.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통상 1월에서 2월로 넘어가면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대략 5~10p 정도 상승함.
 - 예상되는 2월 공사물량지수 상승폭은 평균 수준보단 약간 높아, 향후 물량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여전히 지수가 70선 중반에 불과해 부진한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75.4, 73.6으로 70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주택 물량지수는 61.7로 지수가 60선 초반에 불과해 공종별로 주택 물량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4.3, 90.2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3.1, 76.6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8.5, 73.1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금	실적	78.5	92.9	74.1	66.7	87.3	65.3
		전망	84.4	100.0	80.8	70.4	91.0	74.2
	자금조달	실적	73.1	85.7	70.4	61.4	79.8	63.2
		전망	82.0	92.9	80.0	71.7	87.2	73.7
인력	수급	실적	94.3	85.7	107.4	89.5	95.5	92.6
		전망	91.6	85.7	100.0	88.9	92.5	90.1
	인건비	실적	83.1	92.9	92.6	60.7	91.6	70.3
		전망	83.6	92.9	92.3	63.0	89.5	74.6
자재	수급	실적	90.2	92.9	92.6	84.2	91.3	88.6
		전망	91.1	92.9	96.2	83.3	92.2	89.1
	비용	실적	76.6	92.9	77.8	56.1	89.7	56.8
		전망	75.6	92.9	76.9	53.7	87.7	57.6

주 : 실적은 2013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월 예측지수임.

끝.